

인류의 첫 번째 죄: 우리가 미끄러진 지점 (창 3:1-13)

1. 최초의 유혹자 '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1절) 그가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합니까?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1) 뱀은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아름)'라는 단어는 원래 중립적인 의미이며, 잠언에서는 '총명하다', '슬기롭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뱀은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간교한 유혹자가 된 것입니다. 이 뱀의 정체는 온 천하를 피는 자인 마귀/사탄으로(계 2:19),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결하는 유혹자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 (2) 뱀은 왜곡된 질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열매만 먹기를 금하셨으나, 마치 모든 열매를 금하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뱀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단히 인색하고 엄한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눔 최근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속삭임이나 유혹이 있습니까?

2. 여자는 뱀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합니까?(2-3절) 뱀이 어떻게 그 틈을 파고들니까?(4-5절)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1) 여자는 뱀에게 친절히 대응했다가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① 특권과 감사의 상실 - 동산 중앙의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 ② 말씀의 첨가 -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 버립니다.
 - ③ 경고의 축소 -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라라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약화시킵니다.
- (2) 뱀은 여자의 허점을 파고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틈을 발견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처럼 될까 봐 질투하는 이기적인 신이라고 이간질합니다.

나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작지만 분명한 실천 사항)

3. 뱀의 거짓말에 여자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니까? 결국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6절)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1) 뱀의 거짓말에 여자는 거짓 환상에 미혹되고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거짓 환상에 미혹됩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또 여자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망을 나무에 투사하자, 이전에는 평범했던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각적 욕망과 스스로 높아지려는 환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 (2) 여자는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남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 버리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권합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욕신의 욕망을 따라 그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어긴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세상적인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4.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7-12절)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추락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과 수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합니다.
- (2)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 (3)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아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며 아내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와도 뱀이 자기를 속였다고 탓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으며, 이 범죄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저주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나눔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숨거나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